

리버사이드 도산기념관 검토 요청

수 신 : 김준혁 국회의원실

원 본 : 필립 안 커디(Philip Ahn Cuddy·Philip Douglas Cuddy)

작 성 : 주식회사 C&K독립문화유산 김수아·신지웅

작성일 : 2026. 9. 9.

본 자료는 필립 안 커디가 직접 제시한 의견과 제공 자료를 주식회사 C&K독립문화유산이 정리하여 김준혁 국회의원실에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본문 중 평가·문제 제기·정책 요청은 모두 필립 안 커디의 견해에 기초합니다. 다툼이 있는 내용은 확정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의원실과 관계기관이 1차 자료와 회계·사업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실 사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1. 필립 안 커디에 대하여

가. 이 문서가 작성된 경위

필립 안 커디는 2026년 9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리버사이드 도산기념관 관련 세미나와 보도 내용을 확인한 뒤, 신규 기념관 건립을 지원하기 전에 역사적 전제와 사업구조를 다시 점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본 문서는 그 의견과 근거자료를 김준혁 의원실에 정식으로 제출하여, 의원실이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검증과 대안 검토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커디는 자신을 도산 가문의 배타적 대표 또는 이른바 적자로 인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가 요청하는 것은 안수산 여사의 아들이자 도산·이혜련·안수산 자료를 보존하고 있고 이에대한 경위를 직접 알고 있는 가족 당사자로서, 정부와 국회가 자신의 자료와 의견도 공식적으로 청취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커디의 표현을 빌리자면, 도산의 유산은 특정 후손이나 단체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유산이며, 사실과 다른 미화는 도산을 기리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나. 필립 안 커디와 안수산 여사의 공적 관련성

필립 안 커디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녀 안수산 여사의 아들입니다.

그는 1982년부터 안수산 여사가 독립기념관에 인계할 도산 가족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도왔고,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독립기념관 관련 자료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여러 공개자료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한미박물관 초대 사무국장, 도산 관련 영문 번역·사진자료 편집, 2013년 연세대학교의 도산 명예졸업장 수여 추진, 미국 내 한인사 보존 활동 등에 참여한 경력을 제출하였습니다.

리버사이드와 관련해서도 1999년부터 논의에 관여하고, 리버사이드박물관에서 열린 초기 도산 사진전을 안수산 여사 및 현지 관계자들과 함께 준비하였다는 사진·행사자료를 이 문서의 첨부자료로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안수산 여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딸이라는 가족관계를 넘어 독자적인 공적 지위를 갖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2년 대한인국민회 활동과 독립의지선전 공적을 인정하여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미국 정부 자료는 안수산 여사를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미 해군에 입대한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 최초의 여성 항공 포술장교, 해군정보국 암호해독 요원, 전후 국가안보국 정보분석관으로 기록합니다. 즉 안수산 여사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와 미국 군사·정보·이민사를 동시에 연결하는 한·미 공동의 공적 인물입니다.

안수산 여사는 이해련 여사가 미국에서 장기간 보존한 도산 관련 자료를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에 인계한 핵심 기증자이기도 합니다.

독립기념관 공식 데이터베이스는 1985년 ‘안수산 기증자료’를 총 3,323점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국가지정기록물과 보물로 지정된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커디의 참여 요청은 장자선호관행에 따른 가게 서열을 다시 정하자는 요구가 아니라, 실제 자료의 출처·소유·보존·기증 의사를 설

명할 수 있는 가족 당사자를 공공유산 관리 절차에 참여시켜 달라는 요청입니다.

다. 주식회사 C&K독립문화유산의 설립 취지와 역할

주식회사 C&K독립문화유산은 2024년 커디(C)와 김수아(K)가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취지는

첫째, 미국의 4·5세대 독립유공자 후손이 보관한 독립유품의 출처와 소유관계를 확인하여 대한민국 공공기관으로 환수·인계하는 일,

둘째, 안수산 여사의 이름을 바탕으로 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커디가 보관 중인 안창호·이혜련·안수산 관련 자료를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일,

셋째, 이미 국내 공공기관에 기증되었으나 상설 공개가 제한된 자료의 소장·전시 현황을 점검하고 적법한 협의와 계약에 따라 국민에게 공개할 전시 기회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C&K는 지난 2년간 필라델피아 독립기를 비롯한 다수의 미주 독립운동 자료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인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리버사이드 건립 문제에 대한 도산가의 문제 제기

가. 장태한의 책과 광도원의 정책 주장의 국회 지원 논의의 관계

리버사이드 신규 기념관의 역사적 명분은 장태한의 2018년 저서 『파차파 캠프』와 이를 재출간한 2025년 저서 『도산 공화국』의 서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북코리아가 커디에게 보낸 e-mail에서도 2025년 발간된 책은 2018년 책의 재출간본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주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가 공개한 사업 설명과 국회 세미나 구성은 장태한의 역사 해석을 토대로 곽도원 회장이 교육·기념관 전략을 제안하고, 국회와 관계기관의 정책·재정 지원을 구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책의 핵심 역사 해석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면, 그 해석을 건립 위치·규모·교육내용의 근거로 삼는 정책도 함께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커디는 리버사이드가 도산과 미주 한인의 중요한 활동지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핵심 문제 제기는 ‘중요한 여러 거점 중 하나’였던 리버사이드를 ‘미 본토 최초·최대 한인타운이자 한국 민주공화제의 기원’으로 단일화하고, 그 결론을 대규모 신규 건립사업의 정당성으로 사용하는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 사항은 커디의 전자우편 원문, 발표자료, 도서 촬영면과 한·미 공개자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검증 대상만 정리한 것입니다.

쟁점	사업의 근거로 제시되는 서술	필립 안 커디가 제기하는 반론	의원실에서 확인할 자료
선행 공동체	파차파 캠프를 미 본토 최초 한인타운 또는 미주 한인 공동체의 출발점으로 설명합니다.	1903년 공식 한인 이민의 출발지인 하와이와 하와이 신민회, 샌프란시스코 친목회 등 선행 공동체와 조직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국가기록원 이민 및 단체 기록

쟁점	사업의 근거로 제시되는 서술	필립 안 커디가 제기하는 반론	의원실에서 확인할 자료
리버사이드 도착	도산이 리버사이드 한인촌을 처음 세운 인물로 소개됩니다.	도산이 도착하기 전에 장경·이강·임정기 등 한인이 이미 거주하였고, 1904년 3월 도산 서신에도 기존 인물의 도움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커디 전자우편 원문·1904년 서신 원본과 소장기록
조직의 중심지	리버사이드를 도산의 미주 조직활동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공립협회와 대한인국민회의 본부·회의·간행물 기록은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로스앤젤레스 등 여러 거점을 함께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공립협회·대한인국민회 회의록과 본부 주소기록
대한인국민회	리버사이드 활동과 대한인국민회 창립을 긴밀하게 연결합니다.	대한인국민회는 1909년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 계열 단체의 통합으로 형성되었으므로, 도산의 창립자 지위와 리버사이드의 역할을 원기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기록원 연표·대한인국민회 원기록

쟁점	사업의 근거로 제시되는 서술	필립 안 커디가 제기하는 반론	의원실에서 확인할 자료
도산의 체류	1903년부터 1913년까지 리버사이드를 도산 활동의 지속적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커디는 해당 기간 도산의 실제 리버사이드 체류가 약 10개월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체류기간과 이동경로를 연보·서신·주소자료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커디 전자우편 원문·도산 연보·서신·주소기록
지도와 발견	파차파 캠프 지도와 역사가 뒤늦게 새로 발견된 것으로 설명됩니다.	1994년 학술행사, 1999년 자매도시 행사, 2001년 자문기구 자료가 존재하므로 발견의 주체·시점·의미를 나누어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커디 발표자료·1994·1999·2001 년 행사자료
사진과 표기	모든 안창호 관련 사진과 지도에 리버사이드 초기 공동체의 연도와 장소를 근거없이 부여합니다.	가족사진과 오렌지 수확 사진의 촬영시기·장소, 샌본 지도의 제작 목적, 사진의 소유·출처 표기를 원본과 대조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진 원본·소장 이력·도서 촬영면·샌본 지도

쟁점	사업의 근거로 제시되는 서술	필립 안 커디가 제기하는 반론	의원실에서 확인할 자료
도서와 사업	2018년과 2025년 도서를 매번 신규 기념관의 역사·교육 근거가 새로 발견된 것처럼 사용합니다.	출판사 회신은 2025년 책이 2018년 책의 재출간본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책의 차이와 세미나·사업계획에 인용된 대목을 대조하여야 합니다.	북코리아 회신·두 판본·국회 세미나 자료

나. 하와이·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전체 미주사 검토

국사편찬위원회와 국가기록원 자료는 1903년 하와이에 최초의 공식 한인 이민자가 도착하였고, 같은 해 하와이 신민회와 샌프란시스코 친목회가 조직되었으며, 1909년 양 지역 조직의 통합을 거쳐 대한인국민회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리버사이드의 가치를 낮추는 자료가 아니라, 미주 한인 독립운동이 하와이·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리버사이드·레드랜즈·로스앤젤레스 등 복수 거점의 연결망으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한 지역을 전체 역사의 시작과 중심으로 고정하는 전시서사는 다른 선행 공동체와 조직의 공헌을 축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도산'이라는 호는 고향 대동강의 도롱섬에서 시작하여, 태평양 하와이섬을 마주하며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위대한 독립 정신으로 화려히게 꽃을 피운 하

나의 연결된 역사이며 한인의 첫 번째 단체 이민 이주마을이 하와이 임이 분명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며 구국운동 지원의 해외 첫 발상지 또한 하와이 임이 100여년 동안 밝혀온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여러 근거로 입증되어 분명한대도 불구하고 리버사이드로 모든 의미를 함축하여 독립역사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려 하면 기존 역사의 고증은 모두 잘못된 것이 됨으로 리버사이드 최초 한인공동체 설은 양립할 성질의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다. 기존 도산 관련 시설·단체의 문제

커디는 서울 도산공원과 로스앤젤레스·리버사이드의 기존 도산 관련 시설에 노후화, 관리 공백, 표기 오류 또는 전시 갱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국가보훈부는 USC 내 도산 가족 거주지를 소개하면서 현판의 ‘생가’ 표기가 부정확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규 기념관의 필요성을 판단하려면 기존 시설의 관리주체, 최근 보수비, 관람·교육 실적, 전시내용의 정확성, 중복 기능을 먼저 조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커디는 기존 도산 관련 민간단체가 가족 당사자를 충분히 참여시키지 않은 채 기념사업과 모금·지원 요청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사업회 공개 홈페이지의 회계책임 페이지에도 현재 확인 시점 기준 EIN은 제시되어 있으나 Form 990, 연차보고서 등은 ‘자료 준비 중’으로 표시되고, 사업 로드맵 일부도 정리 중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위법이나 사익추구를 확정하지는 않지만, 공적 지원을 논의하기 전에 법인 지배구조, 후원금 사용, 이해충돌, 부지·건물 소유, 향후 운영비

부담을 공개하여야 할 이유가 됩니다. 커디가 제기한 개인별 비위 주장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지난 십수년간 지속되었던 것이며 실제, 한국과 미국에 도산의 호칭을 사용한 사단법인이 여럿있으며 모두 지역의 낮은 곳 보다는 높은 곳에서 활동하는 일명 “프리미엄” 재단으로의 활동성이 다소 뚜렷한 것도 사실입니다.

3. 김준혁 의원실에 바라는 점

가. 도산 정신에 맞는 검증·정리의 순서

커디가 이해하는 도산 정신은 진실을 구하고, 옳은 행동을 선택하며, 책임과 봉사를 통하여 공동체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그가 제출한 연설자료도 핵심 원칙을 ‘진실 추구, 옳은 행동, 충성, 용기’와 자기개선·술선수범·시민적 책임·봉사로 정리합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기존 시설과 단체의 운영을 점검하지 않고 논쟁 중인 역사 해석을 근거로 새로운 대형 기념관부터 건립하는 것은 도산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커디의 견해입니다.

특히 공개보도에서 리버사이드 사업비는 2022년 약 600만 달러에서 2023년 최대 5,000만 달러로 확대되어 제시되었으며, 5,000만 달러는 환율에 따라 약 700억 원 안팎의 규모입니다. 이 금액 전부를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의원실은 현재의 총사업비, 한국 정부·지자체·민간에 각각 요청하는 금액, 부지 제공조건, 건립 후 연간 운영비와 적자 책임을 구분하여 확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규모가 크게 변한 사업일수록 역사적 타당성뿐 아니라 재정 지속가능성과 기존 시설과의 중복성까지 먼저 검토함이 응당 타당합니다.

나. 의원실에 요청드리는 구체적 조치

첫째, 당사자 청취 절차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한·곽도원 측의 설명뿐 아니라 필립 안 커디와 다른 도산 가족의 자료·의견을 동일한 조건에서 청취하고, 커디의 다음 방한 시 의원과의 면담 또는 비공개 간담회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독립적인 사료검증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최대 한인타운’, 도산의 체류기간, ‘도산 공화국’의 동시대 용례, 1911년 회의 장소와 결론, 지도·사진의 연도와 출처를 핵심 과제로 정하고, 국사편찬위원회·국가기록원·독립기념관·미국 현지 기록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연구자가 함께 검토하도록 요청드립니다.

셋째, 공적 지원에 앞서 사업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등기와 정관, 이사회·자문기구, 최근 Form 990와 연차보고서, 기부금 및 정부지원금 사용내역, 부지·건축·운영계획, 유물목록과 소유권, 대한민국

측 지원 요청의 범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검증이 끝날 때까지 정책적 확정을 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버사이드의 역사적 가치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논쟁 중인 서사를 국회·정부가 공식화하거나 대규모 재정지원의 근거로 사용하는 일을 잠정 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존 시설과 대안사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건립안과 아래의 보수·전시·자료환수·디지털화 사업을 비용, 공공성, 역사 정확성, 지속가능성 기준으로 비교한 뒤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커디가 제안하는 우선 대안

- 서울 도산공원의 시설·안내체계·교육콘텐츠를 전수 점검하고, 방치·노후 부분을 보수하여 국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기념관의 공간으로 갱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내 시민공원 그 이상의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USC 내 도산 가족 거주지, 로스앤젤레스의 옛 흥사단 관련 시설, 리버사이드의 기존 동상·공원 등 미국 내 도산 관련 시설의 관리주체·표기·전시·보수 필요성을 한·미 공동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기념관의 안수산 기증자료 3,323점에 대하여 소장·열람·전시·대여·디지털 공개 현황을 조사하고, 미전시 자료를 전수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아카이브 자료화가 되어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과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리버사이드 관련 추가 자료가 충분히 공개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4. 결어.

필립 안 커디는 리버사이드의 역사를 지우거나 어느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결론도 1차 사료에 따라 검증받을 수 있으며, 같은 기준이 장태한의 책과 광도원이 추진하는 기념관 사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김준혁 의원실이 이미 제기한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양측의 자료를 공식적으로 청취하고 기존 시설의 정상화와 공공유산의 공개를 우선하는 해법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 올바른 해결의 일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 확인자료

-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가보훈처, 「안창호 선생 장녀 안수산 선생 등 303명 독립유공자 포상」, 2022. 8. 12.
- [2] 미국 국방부 계열 공식 역사자료, “Navy Lt. Susan Ahn Cuddy: WWII Trailblazer,” 2021. 4. 30.
- [3] 미국 백악관 기록관, 2018년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 대통령 포고문.
- [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안수산(Susan Ahn Cuddy) 기증자료」, 1985년, 총

3,323점.

- [5] 국가보훈부 보훈문화포털·독립기념관, 2019·2024년 기증자료 특별전 자료.
- [6] 장태한, 『파차파 캠프－미국 최초의 한인타운』, 2018; 『도산 공화국』, 북코리아, 2025.
- [7] 북코리아가 필립 안 커디에게 보낸 전자우편, 2026. 5. 21. 2025년 책이 2018년 책의 재출간본임을 설명합니다.
- [8] 미주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홈페이지 및 2026. 9. 7. 국회 세미나 보도자료·연합뉴스 기사.
- [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미주 한인사회 및 1903년 하와이 신민회 관련 자료.
- [10] 국가기록원, 미주 한인이민 연표 및 대한인국민회 기록 소개.
- [11] 우리역사넷, 안창호의 생애와 ‘도산’ 호의 유래 설명.
- [12] KBS WORLD 한국사 인물자료, 하와이와 ‘도산’ 호의 유래 설명.
- [13] 국가보훈부, 「교과서에 나오는 도산 안창호 가족 거주지」, 2008. 1. 29.
- [14] 미주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홈페이지 ‘회계책임’ 및 ‘로드맵’ 공개 현황, 2026. 9. 9. 확인.
- [15] 미주중앙일보, 2022년 리버사이드 도산기념관 사업비 약 600만 달러 보도.
- [16] 미주중앙일보, 2023년 리버사이드 도산기념관 사업비 최대 5,000만 달러 보도.
- [17] 필립 안 커디 전자우편 원문 3건, 약력 PDF, ‘Facts Don’t Lie!’ 및 진주 연설 발표자료, 도서 276~277쪽 사진.